

박제가 된 천재의 딜레마

‘이상 전설’은 전형적인 천재들의 일화...
이 상의 광기는 절망 앞에서 그가 찾은 도피처일뿐

김연수 | 소설가

에른스트 크리스와 오토 쿠르츠가 쓴 《예술가의 전설》(사계절)은 예술가라는 존재에 대한 정말 이지 지극히 흥미로운 견해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글은 그 책을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니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인용하는 데 그치겠다. “전기기록들을 서로 비교하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눈에 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예술가가 분명히 다른 인물인데도 이상하게 비슷한 줄거리와 닳은꼴의 소재가 전기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비슷한 줄거리는 무엇인가? 양치기 소년이 우연히 그린 그림을 보고 안목 높은 사람이 그를 거둬 교육시킨다는 것과, 그가 그린 그림이 얼마나 깜짝같은지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착각했다는 것.

예술가를 둘러싼 전형적인 전설

이 책이 출간된 것은 1934년 7월의 일이다. 바로 그 달에 이 상의 <오감도> 연작이 이태준의 소개로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됐다. 총 30편 예정으로 연재를 시작했지만, 15편만 발표하고 그만 뒀다. 왜냐하면 ‘미친 놈의 잠꼬대냐’ ‘무슨 개수작이냐’며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라고 이 상 전기는 전한다. 이는 이 상의 광기와 천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예술가 전설을 파헤치는 젊은 미술사학자의 책이 출간된 바로 그때 동양의 한 식민지에서는 새로운 천재가 탄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여간 재미있지 않다. 《예술가의 전설》과 <오감도> 일화를 함께 놓고 읽는다면 전혀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상 전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의 핵심은 그가 어릴 때부터 천재였다는 것, 폐병으로 일찍 죽었다는 것, 기행을 일삼았다는 것, 난해시를 썼다는 것 등으로 압축된다. 앞의 두 항목은 천재의

지표로, 뒤의 두 항목은 광기의 지표로 읽힌다. 하지만 이 네가지 항목은 이상 전설 이전에 이미 여러 천재들의 삶과 일화에서 읽을 수 있었다. 명민한 김기림이 죽은 그를 랭보에 비유한 것처럼 말이다. 이상 전설은 사실 그의 천재성과 광기를 보증하는 일화가 온전히 그만의 고유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다만 그의 일화가 천재성과 광기의 지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가장 끔찍하게 전해진 경우는 바로 ‘우구이스노 다니와다리’란 일본 속담과 관련 있는 일화다. 자신을 <지주회시>에 등장하는 ‘오’(吳)라고 주장하는 문중혁은 한 회고에서 이 속담 이야기를 했다. 피꼬리가 골짜기를 건너간다는 뜻으로 한 남성이 한 방에 여러 여자를 눕혀놓고 성행위하는 것을 뜻하는 속담인데, 1940, 50년대까지만 해도 이 상은 이런 식으로 성행위를 펼치는 기인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이런 일화들은 그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널리 유포됐다. 사람들이 이 상을 천재적인 광기의 인간으로 여길 때,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이같은 일화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일화는 그의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그러니까 플라톤적인 의미에서 전형적인 천재의 일화다. 따라서 강변하자면 광기의 천재란 일화에서 창작되는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천재의 일화를 창작해낸다면 누구라도 천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도 자신이 천재적인 시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기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예술가의 천재와 광기란 그저 작품에 아우라를 두르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것일까?

다시 《예술가의 전설》로 돌아가 보자. 이 책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추억 속에서 그들은 외롭지 않았다. 예술가들이 떼지어 군생하는 거대



이상

한 천재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술가가 자신을 저주받은 천재로 몰아넣고 광기에 사로잡히는 것은 과학적 행동이 아니다. 크리스와 쿠르츠가 ‘천재공동체’라고 부른 어떤 소속감에서 비롯된 행복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천재와 범재를 가르는 1퍼센트의 차이

이 상의 천재성과 광기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서 비롯된다. 1930년 대학병원에서 폐병 판정을 받은 이 상의 외로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그 판정 앞에서 이 상이 느꼈을 외로움과 고립감. 그 절망 앞에서 이 상이 찾은 도피처가 바로 천재들이 모여서 만든 예술공동체라는 것이었으리라. 이 상이란 사람은 아마도 49%의 ‘평범한 인간’과 51%의 ‘박제가 된 천재’로 이뤄진 어떤 존재다. 하지만 그 1%의 차이가 절망에 빠진 이 상을 구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1%를 100%로 여기게 된 것은 또 다른 고립감이자 절망이 아닐 수 없다. 천재의 광기는 대개 이런 모습이라는 것.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